

The Reunified Korea Economy

統一經濟 Briefs

●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북한 경제 개발

Executive Summary

□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북한 경제 개발

북한 경제의 개발은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뿐만 아니라 남한 경제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대북 경제 지원의 필요성과 경제 위기에 따른 한반도의 정치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남한산 자본재의 수요 증대 형태로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고 산업 내 분업이나 공정간 분업 구조의 형성을 통하여 남한 산업의 구조 조정과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경제의 개발을 위한 전략으로는 ▲수출 전략 산업의 육성, ▲기간산업의 구조 조정과 선택적 현대화, ▲북한 역량에 부합하는 첨단 기술 산업의 육성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수출 전략 산업으로는 섬유와 전기·전자 산업이, 기간산업의 선택적 현대화의 대상으로는 금속과 기계 산업이, 그리고 첨단 기술 산업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IT 산업이 유력하다.

이러한 경제개발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출 주력 산업으로의 투자 집중과 군수 부문의 민수화(民需化) 등 중화학 과 군수 중업 중심의 자원 배분 정책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남북 경협 및 대외 개방 정책 확대를 통한 외부 자본의 유치 **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소유권 제도의 개혁이나 계획 경제의 전면적인 폐지 등은 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자율성 확대나 물자 공급 체계의 수정, 시장 요소의 지속적인 도입 등의 개혁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한 산업 협력은 북한 수출 전략 산업의 생산 기반 확보와 기술 현대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기간산업의 구조 조정과 현대화를 위한 협력은 핵문제 해결에 따른 북한의 대외 관계 개선 등 여건이 개선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공업 생산을 위한 원자재 공급에 대한 대안으로 의류 산업의 생산 기반 확충 지원 사업, 비료 공장 개건 지원 사업, 북한 제품의 수출 지원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북측에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1.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과 남북 경협

○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의 의미)

- 남북 경제 통합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한 과정, 분야로서 의미 지님
- 통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친 통합의 과정이며, 경제 통합도 여타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 다른 분야의 통합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경제 통합의 선도성(先導性) 때문에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 경제 협력과 경제 통합이 강조되는 것임,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남북한 경제 통합)

- 남북한의 경제 체제와 주민 소득의 차이 해소, 산업 간의 연관 확립해 가는 과정, 이는 통일의 경로에 의존함

○ (남북 경제 통합의 세 단계)

- 화해 협력 단계, 연합 단계, 통일 단계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 통일의 경로에 따라서 진전될 것임, 남북 경제 협력은 이러한 경로를 통한 경제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주된 수단임
- 화해·협력 단계 :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
 - 남북간 신뢰 구축 및 조해 관계의 구축을 위한 남북한 경제 협력의 활성화가 주된 과제임
 - 남북 경협의 제도적 장치의 마련, 남북한 산업 협력의 추진 등
- 남북 연합 단계 :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의 본격적 착수
 - 남북한 자유 무역 지대나 관세 동맹 등을 통한 제도적 환경 구축
 - 교통, 통신, 전력망의 연결 등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 자본)의 개발, 본격적인 산업 협력 및 금융 협력 등 남북한 경제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협력 확대

- 통일 단계 : 경제 통합의 완성 및 통합 경제의 발전 도모
 - 경제 제도의 통합, 통화 통합 등을 통한 경제 통합 완성
 - 교통, 통신, 에너지 망의 연결 완성, 남북한 산업 구조 조정과 산업 재배치를 통한 통합 경제의 발전을 도모함

2.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북한 경제 개발

○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론)

- 남북 경협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 경제가 발전, 북한 경제 체제 전환도 진전되어 나갈 것임을 전제로 함
- 남북 경협을 통한 북한 경제의 발전이 한반도 전체의 경제적 발전을 수반할 것이라는 전제도 내포되어 있음

○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의 전제 조건)

-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이 대북 정책, 특히 남북 경협 정책의 주요한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북한의 경제 개발 및 남북한 산업 협력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함

가. 북한 경제 개발의 필요성

○ (문제 의식)

- 남북 경협을 통한 북한 경제 개발, 혹은 그를 위한 투자나 산업 협력이 오히려 통일 비용만 증대시킬 수 있음
- 대규모 중화학 설비 등 현재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설비는 낙후된 기술 수준 등으로 국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며, 통일 시 사실상 폐기 처분 되어야 할 것임
- 북한이 시장 경제로 전환하지 않는 한 북한 지역에 신규로 건설되는 설비 역시 통일 이후 경쟁력을 갖기 힘들며, 이를 위한 투자는 자원의 낭비에 불과할 것이라고 함

○ (부정적 견해)

- 북한 경제의 의식적인 개발 노력은 자원의 낭비에 불과함
- 남북 경협은 식량난 등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에 따른 정치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야 함
- 과정으로서의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론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음

○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의 의미)

- 남북간 경제에 있어서 생산적 연계의 강화를 통하여 진전되어 가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북한 경제가 확대 재생산 구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
-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론이 의미를 가지지 위해서는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 남북한 경제는 적어도 상당 기간 독자적인 경제로 존속할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함
- 확대 재생산 구조 복구를 통한 북한 경제의 개발이 전제되지 않은 남북한 산업 협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제한적으로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경제의 남한 경제에 대한 종속 상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 (북한 경제 발전의 필요성)

- 북한 경제의 발전은 과정으로서의 남북한 경제 통합에 필수적이며, 이는 남한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단기적으로 북한 경제의 회복 및 성장은 대북 경제 지원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정치적 위험을 감소시킬 것임
- 중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의 발전이 남북한 산업 협력의 확대와 그에 따른 남북한 산업 연관의 심화를 수반하면서 이루어진다면 남한 산자본재 수요의 증대 등의 형태로 남한 경제에 새로운 시장이나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남북 경제 통합 과정의 실질적 의미)

- 남북 경제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 경제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과거 비효율적인 구조 하에서의 성장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큼
-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된 상황에서의 북한 경제의 발전은 세계 경제에의 편입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것임
 - 따라서 북한 내의 비효율적인 산업 부문의 확대가 아닌 생산 요소 부존 조건 하에서의 국제 경쟁력에 기반 할 수밖에 없음 것임
- 남북한 산업 협력 역시 북한의 생산 요소 부존 조건을 무시한 채 지속될 수는 없을 것임. 국제 경쟁력을 무시한 남북한 산업 협력은 남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지속 가능성이 없음

나. 북한 경제 개발 방향

○ (노동 집약적 부문)

- 북한 경제의 개발을 위하여 북한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 요소인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섬유 등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우선적인 육성이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수임
- 현재의 북한 생산 요소 부존 조건에 기초한 노동 집약적 부문의 북한 경제 개발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존재함
- 북한의 생산 요소 부존 조건과 동일 한국의 생산 요소의 부존 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재의 생산 요소 부존 조건에 기초한 경제 개발이 장기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후생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임
-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육성된 경공업 분야는 북한 경제가 발전된다면 저임의 이점이 소멸되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것임
 - 정치적 통일에 의해 남북한 주민간의 임금 격차가 소멸된다면 현재 남한의 한계 산업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논리임

○ (이러한 논리의 오류)

-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협소한 정의
 - 의류 등 경공업뿐만 아니라 기계·금속, 전기·전자 등 중화학 공업이나 첨단 산업에서도 노동 집약적인 공정은 다수 존재함
 - 남한 경제의 중추 산업에서의 남북한 분업 구조의 형성이 가능함
- 북한의 임금 경쟁력은 남북한 간의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북한 지역에서 육성되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나 부문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여지는 충분히 있음
- 산업 및 기술 발전의 동태적 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산업은 내부에 자본 집약도 및 기술 집약도가 상이한 부문이 많이 존재함
 - 섬유 산업의 경우, 경제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봉제 의류나 면방직 중심의 산업 구성에서 합성 섬유 등 상대적으로 자본 집약적이거나 기술 집약적인 부문까지 포함하는 산업 구성으로 발전함
 - 북한의 경제 개발이 남북한 산업 협력을 수반하면서 이루어진다면 섬유 산업 내부에서 수직적·중경간 분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이는 한반도 전체에서의 섬유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남한의 섬유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 남한 경제의 입장에서도 각 산업 분야에서 중저위 기술 부문의 일정 규모의 존재는 해당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함

다. 남북한 산업 협력 분야

○ (산업 협력 우선 추진)

- 남북 산업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노동 집약적 분야를 중심으로 한 산업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임
- 노동 집약적 산업의 통합 경제에서의 경쟁력을 감안해서 남한의 주

력 산업을 중심으로 남북 경협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과 특정 산업보다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 등이 존재함

○ (주력 산업 중심 남북한 산업 협력론)

- 남북한 경제 통합이 궁극적으로 남한 경제에 대한 북한 경제의 편입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남한 주력 산업 중심의 남북 경협론은 일정한 근거 있음
- 수익성을 무시한 채 남북 산업 협력이 지속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노동력의 활용 측면을 무시할 수 없음
- 남한 주력 산업에서의 남북 경협은 북한 경제의 발전과 산업 구조 조정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제한된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 북한의 수용 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중화학 공업이나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의 투자 역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중화학 공업의 설비 역시 기술 개발의 흐름에 뒤처지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가치가 훼손됨

○ (사회간접자본 우선론)

- 통일 한국의 하부 구조로서 활용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중심의 투자가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입장임
- 에너지의 부족이나 수송시설 등 간접자본의 낙후가 북한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 부문의 확충이 경제 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과도 연결됨
- 재생산 순환이 크게 훼손된 상태에서 건설된 사회간접자본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힘들며, 적절하게 관리되기도 어려움
- 사회간접자본의 전면적인 건설보다는 특정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부문에서 제한적으로 건설되는 것이 현재의 북한 경제상황에서는 효과적임

3. 북한 경제 개발 전략의 모색

가. 한국의 1960-70년대 개발 모델과 북한에의 적용 가능성

○ (수출 주도형 개발 전략)

- 이 시기 한국의 경제 개발 모델의 특성은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선도 부문에 대한 자원의 집중과 지원, 정부 주도 개발 전략 등임
- 자유 무역이 확대되던 국제 무역 환경, 권위주의적 정부와 경제 개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테크노크라트(technocrat: 기술 관료)의 존재 등이 이 시기 개발 전략 성공의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음

○ (북한 경제 개발 전략에 대한 시사점)

- 대외 지향형 공업화 전략
 - 동원 가능한 유일한 자원인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수출 산업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발전 전략
 - 대내외 경제 정책은 외부로부터의 자본, 기술 및 중간재 도입, 수출 부문 생산 능력 확대, 수출 시장 확보 등에 집중
- 정부의 강력한 역할
 - 경제적 비전을 갖춘 리더십과 이를 뒷받침하는 견고한 정부 조직은 효율적인 개발 정책의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 중앙 집권적 정부 하에 정부 정책이 명확하고 합목적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제 계획이 필요함
 - 경제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기술 관료 집단의 육성 필요함
- 선도 부문에 대한 자원의 집중
 - 효율적인 유인 체계의 구축
 - 전면적인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업 및 개인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의 구축

○ (남한 경험의 적용 가능성)

- 국유 기업의 사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 구조의 개혁은 현 단계에는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님
- 현재의 소유권 구조 하에서도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서 정부가 주도하는 선도 부문의 생산 확대 및 기술 수준 향상은 부분적으로 가능함
- 전면적인 대외 개방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님
 - 북한의 대외 개방 정책의 성과가 미진한 것은 북한과의 사업을 통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신뢰를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음
- 국제 시장에서의 접근성 문제도 북한이 현 시점에서 수출 지향형 공업화 전략을 채택할 때 직면하는 문제점
 - 이 역시 남북 경협 확대와 대외 관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한 사항임

나. 북한 경제 개발 전략¹⁾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자립 경제)

- 세계 경제에 적극적으로 진입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
- 대내외 정치·경제적 제약 조건으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자원 유입이나 원조를 통한 경제 발전 전략의 추진이 불가능하고 자체적인 산업 기반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 고려

○ (비전 실현을 위한 경제 개발 전략)

- 첫째, 수출 전략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기간산업의 구조 조정과 현대화를 위한 자원을 확보

1) 여기에서는 주로 산업 육성 전략에 관해서 검토한다. 재정, 금융, 지역 전략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북한 경제 개발 전략에 관해서는 조동호 외, 『북한경제 발전전략의 모색』 (서울: KDI, 2002) 참조.

- 북한이 중화학 공업에서 일정 수준의 산업 기반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들 분야가 경제 성장을 위한 자본과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못하며, 제품의 판매 시장도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임
-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노동력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출 전략 산업의 육성에는 현 시점에서 북한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산업 발전 정책임

- 둘째, 북한이 구축해 온 중화학 공업 부분의 구조 조정과 선택적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함
- 북한에 폭넓게 구축되어 있는 산업 기반을 중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구조 조정과 선택적 현대화를 통하여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간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독자적으로 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함
- 셋째, 북한 역량에 부합하는 첨단 기술 산업의 육성함
- 대규모 자본과 오랜 기간의 산업화를 요하는 전통적인 산업 발전 노선을 뛰어넘어 첨단산업을 통한 '단번도약론'은 현실성이 없음
- 북한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과학 및 기술, 그리고 기술 훈련이 된 노동력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를 선정, 집중 육성함으로써 일정정도 성과를 거둘 여지가 있음

다. 전략 산업²⁾

○ (선택된 소수 산업에 자원 집중)

- 부족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산업 구조 조정과 산업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선택된 소수의 산업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전후방 연쇄효과³⁾의 정도, 북한이 확보하고 있는 경쟁력 요소, 산업

2) 전력, 광업, 철도 및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은 선택적 육성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3) 산업 연관표는 산업 상호간의 연관 관계를 나타내는 표이므로 이 표에서 보면 어느 특정 산업의 생산은 다른 산업의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각 산업은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재로 구입하여 생산 활동을 하고 그 결과 생산된 생산물을 다른 산업에

기반, 기술 수준 등이 고려되어야 함

<표 1> 전략 산업 선정 결과

	선정 산업	선정 사유	문제점
수출 주력 산업의 육성	섬유 산업	전형적인 노동 집약적 산업 경공업 중 상대적으로 폭넓은 생산 기반 확보 임가공을 통한 수출 경험 축적 의류 분야,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 보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에 근접한 생산 설비의 확보	-비날론, 인견섬유 등 경쟁력이 없는 상류 부문 의류 생산 설비의 영세성과 노후된 방직 설비
	전기·전자 산업	노동 집약적 공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술 집약적 산업 북한 노동력의 기술 흡수 능력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육성이 필요	-영세한 산업 설비와 낙후된 기술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등 외부로부터의 제재
중화학 공업의 선택적 현대화	금속 산업	철광석 등 원자재의 부족 철강 산업의 경우 기술 수준이 낙후되어 있으나 현대화 가능성이 있으며 비철 금속 산업의 기술 수준은 북한의 여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자체적인 자본재 공급의 필요성	-철강 산업은 현대화를 위한 투자규모가 매우 큼 -비철 금속 산업은 전형적인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으로 에너지 여건이 호전된 이후에 육성 가능
	기계 산업	-범용기계, 산업용 기계 등 분야에서 폭넓은 생산 및 기술기반 확보 외부로부터의 자본재 도입의 어려움으로 인한 기계 공업의 육성 필요성 노동 집약도가 높은 부문 등에서 국제 경쟁력 확보 가능성	-정밀 기계 및 첨단 기계 분야의 낙후
첨단 기술 산업의 제한적 육성	IT (소프트웨어 중심)	기술 집약적인 산업 인력의 집중 육성에 의한 산업화 가능성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 향상에 의한 성장의 가속화 잠재	-사회 전반의 정보화가 전제되지 않은 IT 산업 육성의 한계 -바세나르 협정 등 외부로부터의 제재에 의한 하드웨어 부문 육성 어려움

자료 : 이석기, 「북한 산업발전 전략과 남북경협」, 2006

중간재로 판매하는 활동 등을 통하여 상호의존관계를 갖게 된다. 이때 각 산업간의 상호의존관계의 정도를 전후방 연쇄효과라 한다.

○ (산업별 육성)

- 수출 주력 산업으로서는 섬유 산업과 전기·전자 산업, 선택적 현대화 대상 산업으로서는 금속 산업과 기계 산업, 첨단 기술 산업으로서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정보 통신 산업이 유력함
- 섬유 산업은 대표적인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면서, 생산 기반 및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활발하게 대외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기·전자 산업은 생산 기반 및 기술 수준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노동 집약적인 공정이 적지 않고 일차적으로 소규모 투자를 통한 육성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 전체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육성이 필요함
- 금속 산업과 기계 산업은 전·후방 연쇄효과가 큰 산업으로 북한 경제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당 수준의 생산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과 기술 수준이나 기술 체계에 있어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며 일정 정도 구조 고도화에 성공하면 수출 산업으로서 육성도 가능함
- 정보 통신 산업에서는 기술 및 인력의 측면에서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하되 하드웨어 분야는 전자 산업의 발전,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등을 기다려 중장기적으로 추진함

4.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한 과제와 남북한 산업 협력

○ (북한의 대내외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구분)

- 핵문제에 인한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북미 관계 등 대외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를 1단계로, 그 이후를 2단계로 설정하여, 각 단계별 경제 개발 전략 및 남북한 산업 협력 방향을 검토함
- 2단계에는 북한의 대외 개방 정책이 한층 강화되고, 사유화 등 소유제의 변화까지는 아니라도 경제 계획이나 기업 관리 체계 등에 있어 상당한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가정함

- 통일 3단계론에 따른 남북 경제 단계와 비교하면 2단계는 화해 협력 단계 후기와 남북 연합 단계 초기 정도에 해당함

가. 수출전략산업의 육성

□ 제1단계

○ (추진 방향)

- 의류를 중심으로 한 섬유 산업의 수출 산업으로의 육성과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 기반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함

○ (섬유)

- 의류와 방직·제직 분야를 중심으로 육성하되, 신규 투자는 수출 피복 공장, 모란봉 합영회사 등 대규모 의류 공장의 생산 설비 현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어느 정도 설비를 갖추고 있는 방직 및 제직 분야는 기존 설비의 개·보수에 역점을 둬
- 자체 브랜드 개발, 디자인 및 기술력 제고, 마케팅 능력의 제고 등을 통하여 중저가 의류 시장에서 독자적인 시장 개척 능력을 확보함

○ (전기·전자)

-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가전제품 조립과 범용 전자 부품을 중점적으로 육성함
- 전자 부품 부문에서는 일정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갖춘 노동력의 확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컨덴서, 스피커 등 단순 조립 전기·전자 부품 및 PCB(Printed Circuit Board: 회로판)의 부품 장악, 일반 범용 부품의 수동 공정 등을 육성함
- 전기기기 분야에서는 북한의 기술 수준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부문인 범용 개폐기류, 자동화 관련 전자기기, 초고압 변전기기와 가정용 배선기기, 송배전류 등의 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함

○ (남북한 산업 협력)

- 현재의 단순 임가공을 설비 제공형 위탁 가공이나 직접 투자로 전환하여 남북한 산업 협력을 통하여 섬유,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 기반 확대와 기술 수준 현대화의 원천으로 활용함
- 개성공단을 북한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을 위한 기지로 활용하는 동시에 북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섬유와 전기·전자 분야 북한 기업의 생산과 기술 개발을 자극함
- 브랜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의 분야는 남한이 적극적으로 지원함

□ 제2단계

○ (추진방향)

- 제1단계의 발전을 바탕으로 섬유 산업의 발전을 심화시키면서, 전기·전자 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함

○ (섬유)

- 의류 표준화를 추진하여 기성복의 비중을 늘리고, 의류 가공 기술 및 품질 관리를 제고시켜 고급 의류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 의류 수출 구조를 고도화함
- 독자 브랜드에 의한 수출의 비중 확대함
- 화학 섬유 부문 구조 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비닐론, 인견사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구식 원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석유 화학 계열의 화학 섬유 산업을 육성해 나감

○ (전기·전자)

- 제1단계에 구축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수출 산업으로 본격 육성함
- 가전제품의 조립 라인을 확대하여 중저가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 범용 부품의 단순 조립에서 벗어나 자체 제품의 개발과 완성품 생산 기반을 확보, 북한을 동북아의 중저가 전자 제품 생산 기지로 육성함

- VCR 등 가전제품, PC, 이동통신 단말기 등 정보통신기기, 1, 2차 전지 등 전자 부품 분야 등으로 생산 영역을 확대해 나가며, 변압기, 발전기 등 중전기 분야의 육성도 추진함

○ (남북한 산업 협력)

- 남북한 산업 내 분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섬유 부문에서는 남한은 연구 개발, 디자인 시장개척 등을 담당하고, 남한의 설비 이전 및 직접 투자를 통해 생산 기반을 북한에 구축해 생산은 북한이 담당하는 형태의 분업을 추구함으로써 북한 섬유 산업의 발전과 남한 섬유 산업의 구조 조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 전기·전자 산업은 산업의 집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산업인 만큼 복합 공단을 추진하되, 입지조건이 좋은 개성공단과 평양·남포 지역을 남북한 산업 협력을 통한 중저가 제품 수출 전용 공단으로 육성함
- 중저가의 대량 생산 품목은 북한이 담당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의 고부가가치 품목은 남한이 담당하는 제품별 분업도 추진해 나감

나. 기간산업의 선택적 현대화

□ 제1단계

○ (추진 방향)

- 기존 설비의 가동률 제고를 위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추진함

○ (금속 산업)

- 철강은 김책 제철소, 황해 제철소 등 대형 제철소를 중심으로 설비 개·보수와 철광석 공급 정상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북한 내 철강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함
- 비철 금속은 설비보다 에너지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1단계에는 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가동률 제고를 추진함

○ (기계 산업)

- 농업 및 광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경운기,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굴삭기, 건설용 기계 등 산업용 기계의 공급 확대에 주력함

○ (남북한 산업 협력)

- 기간산업 부문에서 남북한 산업 협력은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작거나 노동 집약적 분야 등의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함
- 북한의 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위탁 가공 교역을 확대해 나가고 점차 투자 협력을 심화함
- 철강 부문의 주물제품, 강관, 선재 및 철선, 못 등과 비철 금속 부문의 도금, 양식기, 철구조물, 주물, 알루미늄 압출 등을 추진함
- 범용 공작기계, 기계공구, 농기계 등을 추진함

□ 제2단계

○ (추진 방향)

- 투자 여력의 부분적 확보와 외부 자본 조달 능력의 향상 등을 바탕으로 금속 및 기계 산업의 본격적인 구조 조정과 현대화를 추진함

○ (금속 부문)

- 김책 제철소와 황해 제철소의 현대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중소형 철강 공장은 특수 용도 철강 제품 생산이나 다른 산업으로 전환함
- 비철 금속 부문에서는 남포 제련소(동, 아연), 문평 제련소(아연), 단천 제련소(아연) 등의 제련소 설비를 현대화함

○ (기계 산업)

- 범용 공작기계 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생산 기지로 육성함
- 회천 공작 기계 공장, 4월 3일 공작 기계 공장, 만경대 공작 기계 공장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범용 공작 기계 부문에서 국제 경쟁

력을 확보, 대안 중기계 공장, 낙원 기계 공장의 현대화를 통해 대형 범용기계 부문을 육성함

- 나남 탄광 기계 공장, 금성, 원산 트랙트르 공장 등의 설비보수와 현대화를 통하여 북한 내 산업용 기계의 공급을 확대하고 수출 산업화함
- 농기계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산업용 기계 중 정밀도가 낮고 노동집약도가 높은 굴삭기, 건설용 크레인, 로우더, 도저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함
- 기계 산업 전반에 걸쳐 군수산업의 민수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남북한 산업 협력)

- 제철소 설비의 현대화는 남북한 산업 협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 북한이 제철소 현대화 프로젝트를 남한에 제시하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한의 협력을 통하여 제철소 설비 현대화를 추진할 경우 남한 기업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주력하고 북한 제철소는 일반 철강 분야에 주력하는 남북한 제철소 간 협력이 가능할 것임
- 기계 산업 분야에서는 베어링 등 일부 범용 부품, 범용 공작기계, 농업용 및 건설 광산용 기계 부문 등에서 북한 내 투자를 통한 남북한 산업 협력이 가능함
 - 북한이 범용 기계류의 생산을 담당하고 남한이 NC(Network Computer: 저가형 퍼스널 컴퓨터)와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컴퓨터 수치 제어) 등에 특화하는 형태의 산업 내 분업도 추진해 나감

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

□ 제1단계

○ (추진 방향)

-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기술과 인력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영역을 확대해 나갈
- 소프트웨어의 자체 개발과 개발된 제품의 수출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지문 인식, 음성 인식 등 각종 인식 기술과 보안 기술을 활용하여, 특화된 제품을 개발하면 해외 시장의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북한 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 애니메이션, 그래픽 등 작업 중정이 분리될 수 있는 분야에서 북한 인력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아울러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일부분을 하청 받아 북한에서 개발하는 방식도 인력 활용의 유용한 방식이 될 것임

○ (남북한 산업 협력)

- 당장 상업화할 수 있는 분야는 남한의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여 상품화하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남북한이 이를 활용하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을 산업화해 나가야 함
-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의 기술과 노동력의 결합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북한의 기술과 인력은 현재에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남북한 협력 사업의 확대가 요망됨
- 보안 기술, 한의학 의료정보 시스템, 어학 시스템, 멀티미디어, 게임,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등 북한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남북한 기업의 생산 및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제2단계

○ (추진 방향)

- 제1단계에서 양성한 인력과 기술을 토대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함

-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인력을 더욱 확충하여 북한을 동북아시아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산기지로 육성함
- 남한 기업 등 외국 기업의 대북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IT 서비스업을 육성해 나갈 수 있음

○ (남북한 산업 협력)

- 남한 등의 IT 서비스 기업과 북한의 주요 IT 전문기관 사이의 합작 사업을 통해 시스템 통합, IT 컨설팅을 개시함
- 초기에는 남한 파견 인력을 중심으로 하되, 점차 북한 고급 인력을 교육시켜 인력 현지화를 이루고 장기적으로 북한의 자체적 IT 서비스 능력을 배양함

라. 남북한 산업 협력 우선 추진 사업

□ 경공업의 수출 산업화 지원 : 의류 산업 생산 기반 확충 지원

○ (경공업 원자재 공급과 지하자원 개발)

- 협력에 따른 북한에 의류, 신발, 비누 등 경공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북한 경공업 특히, 수출 전략 산업으로의 육성 필요성이 있는 의류 산업 생산 기반 확충 사업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함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0차 회담에서 남측이 의류, 신발, 비누 등 경공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 북측이 마그네사이트 등 지하자원 개발 투자권과 생산물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 사업 합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합의하지 못하고 있음

○ (경공업 원자재 지원)

- 이를 위해 남측이 필요한 재원이 연간 1,000억 원 정도가 될 것인데, 5년간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5,000억 원의 재원으로 북한 의류

공장의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을 지원함

- 경공업 원자재 지원규모는 남한 정부는 연간 6,000만 달러를 제시하고, 북측은 1억 8천만 달러 정도를 제시한 바 있음

○ (종합적 육성 프로그램)

- 북한 의류 및 원부자재 공장의 신규 건설, 시설 현대화, 원자재 공급, 기술지원, 인력훈련,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종합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북한 의류 산업의 생산 기반을 확충함
- 의류 공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해 있고, 에너지, 노동력 등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양·남포 지역 대상, 실사를 통하여 당장 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 공장, 개·보수가 필요한 공장 확인, 부족한 설비 추가 건설함
-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중 북한 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부분과 남한 등을 통하여 공급이 필요한 부분을 산출, 공급 계획을 세움
- 필요한 에너지 중 자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소규모 발전소 건설을 포함한 공급 방안을 마련함
- 노동력 훈련, 기술지도 등은 원칙적으로 공장이 입지할 평양·남포 지역에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개성공단을 활용함
-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 내수용으로 사용하되, 일부는 KOTRA 등 남한의 해외시장 개척 역량을 활용하여 수출을 모색하거나 남한으로 반출함
- 개성공단에서 북한 의류 공장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며, 역으로 북한 내 공장에서 원부자재를 개성공단 내 공장에 공급하여 최종재를 북한에 공급하는 방안도 모색함

○ (남북한 섬유산업 협력위원회)

- 이러한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남북한이 (가칭) 남북한 섬유산업 협력위원회를 구성함

□ 기간산업 지원 : 비료 공장 개건 지원

○ (개건 사업 지원)

- 농업 생산에 직결되는 비료 공장의 경우 인도적 대북 지원과 산업 개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건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 볼 만함
- 북한 당국은 이미 1998년에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국제연합개발계획)를 통해 “북한 농업의 회복과 환경보조”와 관련하여 홍남 비료 및 남흥 비료 등 2개 비료 공장의 개건 사업에 대한 지원(9,300만 달러)을 국제 사회에 요청한 바 있음
- 현재 우리 정부는 인도적 대북 지원으로서 북측에 2004년 30만 톤, 2005년 35만 톤 등 매년 수십만 톤의 비료를 지원함
- 비료 공장 개건을 지원해 스스로 비료를 생산케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욱 경제적인 것이며, 따라서 우리 측의 지원 자금을 절감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다만, 개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투자 자금이 들어감과 동시에 비료 지원도 병행, 6자 회담이 타결될 경우 전력 및 인프라 등 여타 대규모 지원 사업이 개시될 가능성이 커,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주의 사항)

- 비료 공장 개건 사업에 대한 검토에서는 투자 자금 조달 문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개건 사업이 완료되어도 북측이 자체적으로 원료와 연료를 조달하지 못해, 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 부담이 따름
- 비료 공장 등 주요 산업 시설에 대한 개건 사업은 현금이나 설비, 기자재만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남측의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이 개건 사업 전반에 걸쳐 북측 기업 관계자와 함께 사업하는 프로젝트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수출 마케팅 지원

○ (수출 마케팅 지원)

- 우리 정부가 북측 기업의 수출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북측 기업의 학습 과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남북 산업 협력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남한의 1960년대 수출 산업 육성 과정에서도 정부 및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현재 북측은 제조업 분야의 수출 능력이 거의 부재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우나,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KOTRA를 통한 지원)

- 초기 단계에서는 중국, 홍콩 등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북측 무역회사 관계자들과 KOTRA 현지 무역관 사이의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함
- 장기적으로는, KOTRA가 북측 기업을 상대로 바이어 및 원자재 구매선 알선, 북측에 투자할 기업의 알선 등의 활동을 통해 북측의 국제무역 및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음

○ (수출 상품 기획 지원)

- 현재 북측의 공산품은 여러 면에서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수출 상품의 국제적 표준에 크게 미달해 있는 상태임
- 따라서, 북측이 국제적 표준을 충족하는 수출 상품을 기획·개발할 수 있도록 남측에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만함
- 특히, 수출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노동 집약적 경공업 분야의 북측 기업들을 대상으로 남측에서 품질, 규격, 포장,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기술적 지원과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수출 상품 기획 지원은 앞 절에서 언급한 “남북기술교류센터” 내에 해당 부서를 창설하여 담당토록 하되, 장기적으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 독립된 기구로 독립시킬 수도 있음

마. 효과적인 산업 발전 전략 추진을 위한 정책 과제

□ 자원 배분 정책의 수정

○ (제1단계 추진 방향)

- 제1단계에는 선행 부문에 대한 투자는 생산의 정상화를 위한 부문으로 국한하고 남은 투자 여력은 수출 산업의 육성을 위한 부문에 집중함
- 시장경제에서의 거래에 익숙한 인력을 양성함
 - 대학에 관련 학과 신설, 국제기구 등을 통한 해외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함
- UNDP, UNIDO(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등 경제 개발 관련 국제기구들을 북한 산업의 현대화에 적극적으로 활용, 이들 국제기구들을 한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경제 협력을 위한 매개체로 활용함
- World Bank(세계은행), ADB(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구의 활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함

○ (제2단계 추진 방향)

- 제2단계에는 외국 자본의 본격적인 유치를 통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함
- 경제 특구를 확대해 나가고 경제 특구 이외의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크게 완화함
- ADB,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대규모 국제 금융 자본을 북한에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기간산업의 선택적 현대화와 수출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하여 확보된 산업 기반을 토대로 남북한 산업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중경간 분업, 제품 차별화 분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 섬유, 전기·전자 산업 등 북한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는 분야에서는 북한을 생산 기지로, 남한을 연구 개발 중심지로 하는 산업

내 분업을 추진함

- 동북아시아 경제 협력에 있어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감으로써 한반도를 제조업 생산, 물류, 연구 개발의 중추 지구로 발전시켜 나감

□ 경제 개혁의 지속

○ (제1단계 추진 방향)

- 단기적으로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시장의 확대, 노동자에 대한 물적 인센티브 확대 등의 개혁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섬유 등 전략산업의 생산 확대와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야 함

○ (개혁화 체제와 기업관리 체제의 개혁 조치 필요)

-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품목에 대하여서는 중앙 집중적 계획을 유지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에 의한 계획화'로 전환함
- 지방 산업 공장에 대해서는 일부 전국적인 의미를 지니는 품목에 대해서는 군-도-중앙으로 연결되는 계획화 시스템을 유지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군에 그 계획화의 권한을 전적으로 이양함
- 사회주의 물자시장을 보다 분명하게 공식화하고, 기업간의 화폐거래를 정착함
- 지배인과 당비서의 권한을 보다 분명하게 정의함으로써 기업소의 지배 구조와 개선함
- 합영·합작 기업의 운영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기업들의 대외경제 활동의 여지를 확대함

○ (제2단계 추진 방향)

- 명령적 계획화 체제의 해체와 지시적(indicative) 계획화 체제의 도입, 다양한 소유 형태의 도입을 포함한 소유제의 개혁, 가격의 자유화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도 제2단계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표 2> 단계별 경제개발 전략

	제1단계	제2단계
북한의 정치·경제적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 관계의 현상 유지 - 남북 관계의 부분적 개선 - 대외 개방의 제한적 확대 - 기존 경제 체제의 지속 - 경제난의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문제 해결 action plan의 확정과 이행 - 북미, 북일 관계 등 대외 관계의 정상화 - 남북 관계의 전반적 개선 - 대외 개방의 본격적 추진 - 경제 체제의 부분적 개혁 - 경제 성장의 토대 확보
경제 개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개건 사업을 통한 생산의 정상화와 중공업에 대한 신규 투자 억제 - 섬유 산업의 수출 주력 산업으로의 육성 -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 기반 확보 - 소프트웨어 부문의 산업화 - 군수 산업에서 발달한 기술을 민수 부문으로 이전 - 남북 경험의 확대와 해외 자본 유치 -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 국제 경제 기구와의 협력 확대와 시장 경제 메커니즘 이해하는 인력 양성 - 계획화 체제 및 기업 관리 체계의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 기계 산업의 선택적인 현대화와 경쟁력을 상실한 중공업의 구조 조정 - 전기·전자 산업의 본격적 육성과 섬유 산업의 고도화 -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출 산업화와 정보 통신 하드웨어의 육성 - 군수 산업 생산 설비의 민수전환 - 해외 자본의 본격적 유치와 남북한 산업 협력의 전개 -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활용 - 소유제의 다양화, 계획화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 가격 자유화 등을 모색

자료 : 이석기, 「북한 산업발전 전략과 남북경협」, 2006.

이석기 현대경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3299-3059)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산업팀장 (sklee@kief.re.kr)

< 남북 경험 추이 >

		단위	2003	2004	2005	2006. 1-5
상 조 적 거 래	남북 교역		40,868	34,780	41,951	18,642
	- 일반 교역	만 달러	(19.2)	(-14.9)	(20.7)	(22.6)
	- 위탁가공교역	(%)	22,367	17,179	20,978	9,619
	경제협력사업	만 달러	2,103	8,867	27,003	12,342
	- 개성공단	(%)	(-15.8)	(321.6)	(202.6)	(37.3)
- 금강산관광		0	4,116	17,674	8,524	
소 계	만 달러	1,602	4,177	8,707	2,981	
	(%)	42,971	43,647	68,954	30,984	
	(%)	(16.8)	(1.6)	(57.9)	(28.1)	
비 상 조 적 거 래	대북 지원	만 달러	27,065	25,840	36,504	11,644
	기 타	(%)	(27.0)	(4.5)	(41.2)	(52.9)
			2,377	215	117	235
소 계	만 달러	29,442	26,055	36,621	11,879	
	(%)	(7.5)	(-11.5)	(51.6)	(54.4)	
총 계	만 달러	72,413	69,701	105,575	42,863	
	(%)	(12.8)	(-3.7)	(51.4)	(34.4)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남북한 주요 경제 지표 비교 >

		단위	2000	2004		비교
			북한	북한(A)	남한(B)	B/A(배)
인 구		천 명	22,175	22,709	48,062	2.1
경제성장률		%	1.3	2.2	4.6	-
명목 GNI		억 달러	168	208	6,810	32.8
1인당 GNI		달러	757	914	14,162	15.5
무 역 액	무역 총액		19.7	28.6	4,783.0	167.2
	- 수출	억 달러	5.6	10.2	2,538.4	248.9
	- 수입		14.1	18.4	2,244.6	122.0
에 너 지	발전용량	만 kW	755	777	5,996	7.7
	발전량	억 kWh	194	206	3,421	16.6
	원유도입량	만 배럴	285	390	82,579	211.7
생 산 량	쌀	만 톤	142.4	180.0	500.0	2.8
	합광석	만 톤	379.3	457.9	22.6	0.05
	자동차	만 대	0.7	0.45	346.9	770.9
	비료	만 톤	53.9	43.4	361.4	8.3
S O C	철도 총연장	km	5,214	5,235	3,380	0.6
	도로 총연장	km	23,633	25,185	100,278	4.0
	항만 하역	만 톤	3,550	3,690	53,278	14.4